

시놉시스

공방에서 팔찌를 만드는 '수정'.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근심가득하게 땅을 보며 학교로 향해 걸어가는 '우희'가 보인다. 공방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고 '수정'은 팔찌에 광을 내며 마무리 손질을 한다. 만족한 모습으로 팔찌를 가져가는 손님.

'우희'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사태가 벌어지고, 왕따를 당한 피해자 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학교가 발각 뒤집힌 다음, 교내 조사가 시작된다. 아무리 조사해도 진전이 없자 학생회 교사들은 가해자 무리와 친하게 지냈지만 심성이 착한 학생인 '우희'를 회유하여 비밀을 보장할 테니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학교선생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며 가해자 친구들을 압박했고, 이를 통해 진술을 강요했다.

교무실에서 양심선언을 한 이후로 왕따가 된 '우희'. 보복적인 2차적 따돌림과 친구들의 추궁과 멸시를 이기지 못하고 무작정 학교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불신과 집단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학교에서 점점 멀어지던 '우희'는 등교시간마다 어디로 가야할지 방황하다가 '수정'의 공방을 발견하게 되고, 맨 날 멍하게 '수정'이 액세서리를 만드는 모습과 수강생들이 공예를 하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게 된다. 막연하게 '수정'의 공방을 지켜보기만 한지 3일째,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비를 피하려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수정'의 권유에 얼떨결에 반값에 수강등록을 하게 된다.

공방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수정'과 점점 가까워지는 '우희'는 뭔가 기대하게 되고, 기대고 싶은 '수정'에게 점점 더 마음이 열리게 된다. 상심가득한 채, 말수가 적었던 초반의 모습과는 달리 '우희'는 '수정'과 함께하면서 나날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해간다.

'수정'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수정'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1년도 안된 채 새 가정을 꾸리셨다. '수정'의 어머니는 얼마 되지도 않는 양육비로 '수정'과 '수정'의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한다. '수정'은 만만치 않은 예대 등록금과 실습 비를 충당하기 위해 바 알바를 시작하게 된다. '수정'이 바 알바를 시작하게 된 이후 주변의 남학생들의 수근거리고 '수정'에 대한 각종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다.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정'을 보면서 걱정하던 '차현'은 새벽마다 '수정'이 일한다고 소문이 난 바 주변을 매일 찾아가본다. 어김없이 새벽까지 일하고 술에 찌든 모습으로 휘청거리며 건물에서 내려오는 '수정'에 주변으로 가게 밖에서도 '수정'에게 아는 척을 하며 진상을 떠는 중년 남성 손님과 밤늦게 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는 '수정'과 같은 과 학생무리들이 사방으로 다가와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수정'. 그런 실망스런 '수정'의 모습을 발견하고도 '수정'에게 실망하거나 추궁하지 않는 '차현'. '차현'은 노출 가득한 의상의 '수정'을 자신의 코트로 감싸준 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담담한 모습으로 '수정'에게 옷을 따듯하게 입고 다니라며 가볍게 당부한 채 '수정'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빠르게 택시를 태워 보내는 '차현'.

다음날 어제의 일로 인해 어쩔 줄 모르는 '수정'을 보자마자 자리에 털썩 앉아서 '수정'이 어렵사리 해명을 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긴 탄식을 내뿜으며 '수정'의 말을 가로챈다. 밑도 끝도 없이 힘들다며 난리를 치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속 내밀며 당장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닥달하는 '차현', 그런 '차현'의 돌발행동에 당황하면서도 강력히 재촉하는 '차현'의 요구에 정신없이 계좌번호를 적는 '수정'. '수정'이 계좌번호를 적자마자 폰을 확 가져가고는 바로 '수정'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는 '차현'. '입금'을 마친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지 도안을 '수정' 앞에 탁 내밀며 내가 죽겠으니 외주작업 부탁한다는 간단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이미 외주 비 선 입금했으니 너에게 선택은 없다며 홀연히 자리를 뜨는 '차현'. 어이없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주는 '차현'의 모습에 피식 웃으며 도안을 보는 '수정'.

졸업을 앞두고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한 중간고사 과제를 발표하는 날에 여태까지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오던 졸업 작품을 열심히 개발하다가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한 선배 '세희'와의 충돌로 인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학과 자체의 경쟁력과 '세희'를 지지하는 동기와 선배들의 압박과 억측으로 인해 '수정'은 '세희'의 디자인을 표절 한 후배로 이미지가 추락하게 된다. '수정'은 학과 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자신을 외면하는 교수진들과 이를 두둔하는

'세희'의 주변 사람들의 세력으로 인해 좌절하게 되고, 자신의 옆을 지키면서도 끝까지 표절이 아님을 밝히자고 독려하고 응원하는 '차현'에게 오히려 화를 내버리고, '차현'을 비꼬는 식의 못한 모습을 보인 채, '수정'은 결국 작품을 중도포기하고 잠적하게 된다.

학교에서 '우희'의 무단결석 통보를 알리는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은 '차현'. 저녁에 귀가하는 '우희'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우희'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맹비난을 하는 '차현', 그런 엄마의 태도로 인해 더 화가 치밀어 오른 '우희'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독설을 한 뒤 가출을 해버린다.

엄마에게 심한 말을 하고 가출을 한 것이 마음에 크게 걸리는 '우희'. '차현'의 전시일이 다가오면서 '우희'는 더욱 고민이 심해진다. 사과를 해야만 하지만 더는 자신이 꼴도 보기 싫은 존재 일 것 같은 두려움에 용기를 쉽사리 내지 못하고 혼자 엄청 고민하다가 '수정'에게 넌지시 물어본다. 자신이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그 상대가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둘러대며 얘기하는 '우희'지만 '수정'의 눈에는 이미 모녀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다 보인다. 그럼에도 모르는 척 '우희'의 말에 속아 넘어가주면서도 경청하는 '수정'은 이번만큼은 사과하고 싶은 그 친구를 위해 작품을 끝까지 완성 할 것을 제의한다. 그동안 작품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수정'이 거의 다 만들어주기 급급했지만 이번 작품은 사과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만들기를 제안하고, 사과의 선물을 디자인해나간다.

계속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만족되는 디자인을 해내야겠다는 부담감이 가득 차오르는 '우희'는 거듭 고민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선물 디자인 기획 속에서 지쳐가고, 의욕이 점점 떨어진다. 역시 자신은 이런 데에 재주가 없다며 포기하려는 '우희'를 보며 어떻게 하면 '우희'가 의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던 '수정'은 여태까지 자신이 작품을 만들 때 옆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우희'의 모습들을 되새겨본다. 그때마다 겹쳐보였던 '차현'의 모습들을 떠올랐던 것들을 생각해낸다. '수정'은 깊은 고민 끝에 반신반의 하며 예전에 자신의 대학시절, '차현'에게 많은 아이디어 제공을 받으며 열심히 제작해나갔던 디자인이자 결국 표절로 매도당하고 포기해 버렸던 디자인의 도안을 '우희'에게 보여준다.

'수정'이 내민 도안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해진 채로 기뻐하는 '우희'. 반신반의 하며 보여준 도안에 해맑게 웃으며, 이 작품이면 정말 배우고 싶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고 싶다는 '우희'의 반짝이는 모습에 난감한 '수정'은 '우희'에게 사실 이 작품은 자신이 유일하게 어려워서 포기한 작품'이라고 이실직고 한다. 그런 '수정'에게 "이 좋은 작품을 도대체 왜 포기 하냐고 자신 같으면 절대 포기 안했다고 선생님 바보냐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묻는 '우희'에게 '수정'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거잖아."하고 웃으며, 선생님도 노력 할 테니 '우희'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해준다. 그 말에 고덕이며 답하는 '우희'. 그런 '우희'를 도와 자신이 10년 전 포기했던 작품을 다시 제작해나가는 '수정'. '우희'가 끝까지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작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작업해준다.

'차현'에게 줄 선물을 완성한 '수정'과 '우희'. 막상 선물을 들고 전시회를 찾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나머지 엄마의 전시회를 찾아가기를 주저하는 '우희'. 그런 '우희'에게 우선 가보기라도 하자고,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도중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우희'를 다독이며 자신의 차에 '우희'를 밀어 넣는 '수정'. 우여곡절 끝에 '차현'의 전시장에 도착한 '우희'와 '수정'. 많은 인파들과 자신이 전시하는 작품 속에서 막상 자신이 가장 축하받고 싶고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딸 '우희'가 없는 것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며, 슬픈 표정으로 전시장 한 가운데 덩그러니 서있는 '차현'. 그런 '차현' 앞에 어색한 듯 '수정'과 함께 만든 선물을 무턱대고 내미는 '우희'의 모습에 환하게 밝아지는 '차현'의 모습. 그런 '차현'을 보며 조심스레 '차현'의 재기를 축하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우희'. 그런 '우희'를 쓰다듬다가 가출한 자신의 딸을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데려다준 분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천천히 뒤를 돌아 '수정'에게 다가가는 '차현'은 '수정'과 직면하게 되자 매우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 짓는다. 10년 만에 재회한 '수정'과 '차현'. 놀라움 뒤에 서로 같은 표정으로 애뜻하게 미소 짓는 '수정'과 '차현'. 그 사이에 어리둥절하지만 기쁜 듯이 '수정'과 '차현'을 번갈아보는 '우희'.